

3. 요지(窯址)

요지는 도요지(陶窯址), 와요지(瓦窯址), 토기요지(土器窯址) 등으로 구분된다. 순천시의 요지는 아직까지 지표조사가 되지 않아 분포상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송광면 후곡리 백자도요지와 해룡면 성산리 와요지만 각각 이화여대와 순천대박물관이 발굴조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뿐이다.

1) 송광면 후곡리 도요지

후곡리 요지는 주암댐 수몰지구 지표조사 때 발견되어 지난 1986년과 1987년 2차에 걸쳐 이화여대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이 백자요지는 행정구역상으로 송광면 후곡리에 위치한다. 순천시의 서북부에 소재한 높이 918.8m의 모후산 동남편으로, 모후산과 연결되어 뺀어내린 야산의 맥이 동쪽에 있는 보성강 연안까지 내려오는 지형의 가운데 골짜기에 해당한다. 가마가 위치한 지역은 이러한 지형조건과 함께 사질토와 석비레층이 형성된 토층이 존재하여 도자기 가마의 축조에 필요한 최상의 토질을 갖추고 있으며,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고풍토의 맥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후곡리 요지는 원료 공급도 용이하며 수로를 이용한 운송도 편리한 지점으로, 도자기 가마 설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가마는 석비레층을 파내어 요상(窯床)을 만들고 양벽은 진흙으로 축조하여 지상에 올린 터널식 등요(登窯)이다. 소성실(燒成室)은 3개의 방으로 이루어지고, 각 방은 불창살로 연결되고 있으며, 화당인 봉통은 반지하식으로 진흙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형식은 일실의 터널식 등요에서 계단식 연실등요(蓮室登窯)로 이행되는 단계의 형식, 또는 일실의 터널식 요를 백자 소성에 적합한 구조로 변형시킨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조선 초기부터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조선백자 지방요의 기본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토된 백자의 기종은 바리·접시·대접·뚜껑·단지 등이 주종을 이루며, 병·장군·떡살 등도 출토되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일상용기이다. 대부분의 것들은 문양이 없는 것들이지만, 약간의 접시·대접에는 철회기법도 보이고 있다. 번조(燔造)방법은 갑발(匣鉢)을 사용하지 않고 요상에 도지미(陶枕)를 놓고 그 위에 기물을 그대로 놓은 나번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양상으로 볼 때 후곡리 요는 갑발을 사용한 고급품은 전혀 굵지 않고, 나번으로 물건을 포개어 소성한 대량 생산체제의 민수용(民需用)가마이다. 또 이는 중국 명대 백자의 영향을 받은 예리한 수직굽, 가는 모래받침, 정제된 기형의 특징을 지닌 백자와는 달리 오목굽에 바탕흙을 빚어 반치는 전통성이 강한 굽형식, 간략한 초문(草文) 형태의 활달한 필치인 철화문양 등의 특성을 통해 볼 때 분청사기의 전통이 계승된 도자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후곡리 가마는 절대연대를 추정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 전반적인 특징 요소로 미루어 17세기경이 그 중심 연대로 여겨진다.

2) 해룡면 성산리 와요지

해룡면 성산리의 검단산 북서쪽 기슭 아래는 양희만 소유의 감나무 농장이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감을 저장하기 위하여 창고를 신축하는 도중에 와요지라고 추정되는 유적이 1995년 봄에 발견되었다. 이

와요지는 1996년 1월에 순천대박물관에서 간략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창고신축 공사 중에 이미 와요지의 입구에 해당하는 아궁이 부분은 훼손된 상태였고 연소실(燃燒室)의 일부와 소성실, 연도(煙道) 부분은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였다. 성산리 기와가마터는 야산의 구릉사면을 파들어가 구축한 지하식등요(地下式登窯)로 단기간에 동일한 공급을 위하여 번와(燔瓦)를 실시한 전용요(專用窯)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조업연대는 유구와 출토된 와편과 녹청자 등으로 볼 때 조선 전기로 추정된다. 기와가마는 아궁이와 연도를 잇는 가마의 주축이 남북 방향에 가깝고, 잔존 전체 길이 9.4m, 소성실의 최대 너비가 2.1m 정도이다. 가마는 연소실과 소성실 사이에 높이 70cm 가량의 낮은 단벽이 형성되어 있고, 소성실은 21° 가량의 급한 경사를 지니고 있으나 계단은 설치되지 않았다. 그리고 보축하거나 수리한 흔적이 없는 점으로 보아 조선 전기 어느 한 시기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폐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송광사 흑토기와요지

이 요지는 송광사 경내에 있다고 하는데 발굴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전라남도 『문화재도록』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자 한다.

송광사 흑토기와요지는 대형 요지로서 보통 기와굴은 짧고 둥근 데 비해 판이하게 큰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요지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흑토기문화권을 형성하고 가람불사문화에 편승하여 발전한 전통적인 가마로, 지금까지 발견된 최대 규모의 기와굴이다. 요컨대 특수 대형 토기와전(土器瓦塼)의 전형이 보존된 내부를 확실하게 실측할 수 있어 당시의 요구조공법과 운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마는 부엌과 불통 그리고 가마몸통이 3분되고 있으며, 또 불통이 특이하게 큰 것은 엽송연료 사용과 불막음 전에 불통에 생엽송을 많이 넣어 탄소입자 알맹이가 기와에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엌이 좁고 긴 것은 불막음을 마치고 입구를 흙으로 막아 공기의 흡입을 쉽게 차단하여 조그마한 공기구멍도 없도록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 요지는 지방기념물 제31호로 송광사 경내의 후원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조선시대 송광사 대가람을 중창보수할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